

# 170억원 들여 '아이들 자라기 좋은 희망 보성' 만든다

군, 34개 초·중·고 20개 교육 사업 운동·외국어 등 방과 후 활동 지원 보성군장학재단 연간 400명 장학금

보성군이 올해 170억원의 예산을 들여 아동·청소년 분야에 지원하는 등 '아이들이 자라기 좋은 희망 보성' 구현에 나섰다. 7일 보성군에 따르면 올해 지역 청소년의 지역 고등학교 진학률은 77.1%로, 최근 5개년 평균 60%를 크게 웃돌았다. 수도권 우수 대학과 인기 학과 진학생은 2020년 19명에서 지난해 38명, 올해 39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보성군은 아동·청소년 분야 예산 170억원 가운

데 23억원을 지역 학교에 투입할 예정이다. 군은 올해 창의 융합형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군비 22억 원을 투입해 지역 34개 초·중·고교에서 20개의 교육 사업을 추진한다. 보성영재교육원 운영 지원과 청소년의 진로 체험 활동 지원이 대표적인 교육 복지 사업이다. 특히 지역 6개 고등학교 특색을 반영해 인재 육성 기반 조성 사업을 벌인다. 인문계고교 3곳에서는 교과목 학력 신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농촌 학교에 영어 체험 교실과 외국어 체험센터, 원어민 보조 교사 지원을 강화해 공교육을 강화한다. 각각 학교 특성에 맞게 운동, 악기, 춤, 외국어 등의 방과 후 활동도 지원한다. 국내 역사 현장 체험 학습과 토요 방과 후 교육도 진행한다. 재단법인 보성군장학재단은 지난 민선 7기부터

지금 목표액을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현재 173억원을 조성한 상태다. 보성군장학재단은 상·하반기에 걸쳐 연간 400여 명에게 3억9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장학금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북돋우기 위해 '제3회 수기 공모전'을 개최하고 '장학회보'를 발간하고 있다. 올해는 꿈 드림 사업과 특별지정 장학금, 인재 육성 장학금, 전문계고 특기 지원 등 13개 사업에 6억 원을 투입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청소년들의 자립성과 자율성, 적극성을 기반으로 청소년 참여 행정을 활성화하고 미래 교육을 위한 인프라와 복지정책을 강화해 아이들이 자라기 좋은 희망찬 보성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김철우(가운데) 보성군수가 청소년과 함께 하는 토크 콘서트에서 참가자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 고흥군민 101명 모인 '고흥애 고향사랑 서포터즈' 탄생

고향사랑기부제 성공 정착 전인

고흥군민 101명이 모인 '고흥애(愛) 고향사랑 서포터즈'가 발대식과 함께 힘찬 첫발을 내디뎠다. 고흥군은 지난 6일 군청 우주홀에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고흥애 고향사랑 서포터즈'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사진〉** 발대식은 서포터즈 위촉 액자 수여와 군수 인사말, 고향사랑기부제 설명, 불특정 다수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 방법 공유 순으로 진행됐다. SNS 가입 및 서포터즈 간 친구 맺는 시간도 진행됐다. 고흥애 고향사랑 서포터즈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군대표 홈페이지와 16개 읍면 추천 등 공개모집을 통한 각각각층 군민 10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병행하고 많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활동을 강



화해 홍보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을 보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더 살기 좋은 고흥을 만드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다"며 "고흥만의 특별한 혜택, 매력적인 답례품과 기금사업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서포터즈의 모 든 역량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 여수시 '노인 의료 통합 지원 시범사업' 선정

전남 유일...국비 27억원 확보

여수시가 전남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27억 원을 확보한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병원·시설 입소를 앞두고 있거나 섬 지역에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의료 서비스와 연계된 돌봄을 제공한다. 지역사회 고령자의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통합 지원 체계이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전국 34개 자치단체가 공모에 참여한 가운데 서면·발표 심사를 거쳐 여수를 포함한 12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여수시는 2년 6개월간 국비 27억 원을 지원받는다. 시는 앞으로 방문·의료, 건강·돌봄, 주거 지원, 돌봄 인프라 구축 등 4개 분야 13개 핵심사업의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오는 7월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읍·면·동 통합 지원장구를 운영하며 대상자를 발굴한다. 시범사업 지원 대상은 모두 2500명이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여수시 관계자가 고령 주민에게 의료 검진과 진료를 하고 있다.

## 영광군 아동 친화도시 조성 군민 원탁 토론회

영광군은 최근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군민 참여 원탁 토론회를 열었다. 영광읍사무소 대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어린이와 학부모 등 80여 명의 지역민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 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 서비스, 교육 환경, 가정 환경 등 6개 조로 나뉘었다. 원탁 토론회에서는 참석자별로 정책을 제안하고 공개 투표를 통해 상위 10개 의제를 선정했다.

정책 의제 선정에 따른 실행 방안을 토론 방식으로 논의하기도 했다. 토론회를 통해 수립된 다양한 의견은 앞으로 영광군 아동친화도시 4개년 계획과 아동 정책 영향 평가 등에 반영될 방침이다. 영광군은 앞으로 아동·청소년·학부모·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협력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 기구는 구체적인 정책을 발굴·심화해 2024년 상반기에 아동친화도시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영광=이종윤 기자 jyilee@kwangju.co.kr

## "생일에 완도 생일도 오면 미역 선물"

완도군 '날마다 생일' 이색 이벤트

"생일날 완도 생일도서 특별한 추억 만드세요." '가고 싶은 섬'인 완도 생일도는 생일에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날마다 생일'이라는 주제의 이벤트를 마련했다. 주민등록증 생일을 기준으로 생일에 생일도를 방문하면 전광관 축하 이벤트와 더불어 생일도 특산품인 미역(사진)을 기념품으로 제공한다. 현재까지 30명이 생일 축하와 미역을 받았으며, 올해 3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선보인다. 생일도 관문인 서성항에는 생일도 랜드마크인 국내 최대 케이크 조형물이 설치돼 관광객들에게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생일도는 산세의 아름다움에 취해 구름도 머문다는 백운산, 상서로운 학이 머문다는 학서암, 금빛 모래밭을 감싸 안은 해송과 동백 숲이 아름다운 금곡해수욕장 등이 있어 최고의 휴양지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에는 행정안전부 등이 선정한 '찾아가고 싶은 봄 섬' 중에서도 특별한 날 가족과 함께 여행하기 좋은 '가족 섬'으로 선정된 바 있다. 서말순 생일명장은 "생일도의 특징을 살린 소소하지만 다양한 이벤트가 활성화돼 관광객이 유입되고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출판취재본부장 ejhung@

###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